

신석기시대의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의 변화*

이 기 성**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기후 변동과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
- III.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
 1. 석기의 분류와 용도 추정
 2. 석기 조성의 변화
- IV.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연구의 문제점
 1. 석기 용도 추정의 문제
 2. 기후 변동 시점의 문제
 3.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변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후 변화는 큰 기제로 인식되어 왔다. 구석기시대의 종말과 신석기시대 시작까지의 공백기, 동남해안과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 등장의 시간적 차이, 신석기시대 중기에 확인되는 유적 입지의 변화와 농경의 확산,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유적의 해체 등, 신석기시대 문화의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 중요한 획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역사기초자료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SRK-1230001)

** 李基星,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부교수

투고일: 2020. 5. 17. 심사완료일: 2020. 6. 1. 게재확정일: 2020. 6. 11.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8..7>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문화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내륙 지역으로의 유적 입지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이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를 석기의 조성 변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검토에서는 기후 변동과 농경의 수용 그리고 석기 조성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농경의 수용 등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 다양한 적응 전략의 산물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석기시대 석기의 성격상, 농경 수용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야기되는 타제석부의 등장을 반드시 농경의 증거만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물론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이 당시의 사회, 생업경제 등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 석기 조성, 적응 전략, 농경

I. 들어가며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후 변화는 큰 기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구석기시대의 종말과 신석기시대 시작까지의 공백기, 동남해안과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문화 등장의 시간적 차이, 신석기시대 중기에 확인되는 유적 입지의 변화와 농경의 확산, 신석기시대 후반기 유적의 해체 등, 신석기시대 문화의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 중요한 획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은 일견 환경결정론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청동기 시대처럼 외부 문화의 확산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석기시대의 경우, 문화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문화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내륙 지역으로의 유적 입지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이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를 석기의 조성 변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를 검토하여, 실제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기후 변동과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

지금까지의 한반도 신석기시대 고환경에 대한 연구는 화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고식생연구, 최근 들어 시도되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해수면 변동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지금까지의 신석기시대 연구에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분 분석을 통한 고식생 복원과 해수면 변동으로, 기존의 연구 경향이 안승모¹⁾와 소상영²⁾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안승모는 일본의 연호퇴적물 및 북대서양, 유럽과 중국의 기후 자료를 종합하여 주기적 기후 변동과 연결된 신석기문화의 변동 과정을 ① 신석기문화의 시작, ② 남해안·동해안에서 조기의 유적 등장(기원전 6천년기 후반), ③ 초기에서 전기로의 전환 시점(기원전 4500년 경), ④ 중부지방에 신석기문화의 등장(기원전 4천년대 전반기)과 태선침선문토기문화의 확산(기원전 3500년 경), ⑤ 신석기시대 늦은 단계(4400-4200 calBP) 정주취락의 해체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³⁾

-
- 1) 안승모, 「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1.
 - 2)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문화 변동』, 서경문화사, 2016.
 - 3) 안승모, 위의 논문, 76~77쪽.

소상영은 고기후 복원 연구 성과⁴⁾를 참조하여 역시 이와 유사하게 신석기 시대 문화 변동을 나누고 있는데, ① 신석기시대의 시작(8000 calBC), ②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신석기 문화의 시작(6000 calBC), ③ 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의 시작(4500 calBC), ④ 내륙으로의 유적 확장, 침선문계토기의 확산 단계, ⑤ 신석기문화의 해체 등이 그것이다.⁵⁾

이를 정리하면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신석기문화의 시작과 해체, 유적 입지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동과 그에 따른 해수면 변동 등과 연관하여 해석되고 있다.

- ① 제주도 고산리유적으로 대표되는 신석기문화의 시작
- ②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신석기문화의 시작
- ③ 중서부지방에서 신석기문화의 시작
- ④ 농경의 시작과 태선침선문토기문화의 확산
- ⑤ 취락의 해체와 신석기문화의 쇠퇴

첫 번째 단계는 신석기문화의 시작이다. 이 시기는 홀로세 이후 해수면의 상승과 비슷한 시점인 10000 calBC를 전후한 때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시작은 고산리유적으로 대표되는 제주도 지역뿐이며, 연대 역시 8000 calBC로 주변 지역에 비해 2,000년 정도 늦다.⁶⁾ 이 시기는 초원 대신 숲이 형성되면서 숲 속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화살촉을 개발하고 도토리 등 식물성 자원을 식용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으나 본격적인 정착생활로

4) 박지훈·이상헌, 「화분분석으로 본 충남지역의 후빙기 환경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4-1, 2008.

5) 소상영, 「한국 신석기시대 기후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 『기후의 고고학』 제3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3~39쪽.

6) 소상영, 위의 논문, 34쪽.

이어지지는 못한 단계이다.⁷⁾ 이렇듯 수천 년간의 문화적 공백에 대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물에 잠겨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설명을 부정하고, 홀로세 초기의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서해의 형성과 같은 환경변화가 수렵·채집집단의 이동성을 높이고 남해의 해수면 상승으로 남쪽에서 인구유입이 어려워져 인구가 주민의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⁸⁾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원전 6200년경부터 수 세기 동안 지속된 한랭기가 끝나고 기후가 온난 습윤해지는 기원전 6천년기 후반부터 동해안과 남해안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등장하는 단계로, 해수면 상승이 정체되면서 동해안은 이 시기에 구릉 사면 아래의 평탄지가 발달하고 만입된 지형조건에 따라 곳곳에 발달한 해안 사구에 유적이 입지하고, 남해안 일대도 만입된 지형과 얕은 바다의 발달로 유적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⁹⁾ 해수면은 현재 수준에 가까워지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로가 생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참나무 중심의 낙엽활엽수림이 성행하면서 도토리나 멧돼지·사슴과 동물도 중요한 식료로 편입되고, 나무를 베고 가공하기 위한 마제석부도 이 시기부터 성행한다고 보고 있다.¹⁰⁾

세 번째 단계는 중서부 지역에서 신석기문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현재의 자료로 4500 calBC 를 넘을 수 없는데, 이는 서해안의 경우 갯벌이 형성되고 큰 강 하구의 지형과 식생이 안정되는 시기가 동남해안보다 늦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 시기는 온난 습윤한 기후 최적기의 마지막 단계로, 점차 한랭건조한 기후로 변하며 기후 건조화와 도토리 감소에 따른 식료를 보완하

7) 안승모, 앞의 논문, 2011, 76쪽.

8) 성춘택, 「수렵채집민의 이동성과 한반도 남부의 플라이스토세 말~홀로세 초 문화변동의 이해」, 『한국고고학보』 72, 2009, 24~27쪽.

9)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34쪽.

10) 안승모, 위의 논문, 76~77쪽.

11) 소상영, 위의 논문, 34쪽.

기 위해 조, 기장 재배를 수용하고 경작지 가까이에 정주 취락을 형성하게 된다.¹²⁾

네 번째 단계는 태선침선문토기문화의 확산과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 단계로, 기후최적기가 끝나는 기원전 3500년경 무렵은 해수면이 후퇴하고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중서부지역의 집단은 새로운 경작지와 자원을 찾아 내륙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며, 해양자원 중심의 영선동식토기문화 역시 강안 충적지에 적응한 중서부 생활양식을 수용하며 태선침선문토기문화로 전환된다고 보거나¹³⁾, 중서부 내륙지역 취락의 입지 변화 및 축소와 해안 및 도서지역에 유적이 집중되는 현상을 기후의 한랭화 경향과 잦은 홍수에 대한 인간의 적응양식의 변화로 추정¹⁴⁾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석기문화의 해체로, 4400-4200 calBP 역시 전 지구에 걸쳐 건조화와 한랭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잡곡 재배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주취락이 해체되고 다시금 어로 중요성이 증대하거나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 생활로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¹⁵⁾,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기후의 한랭건조화 경향으로 인해 생계경제의 다양성이 붕괴되어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 생활로 회귀하며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¹⁶⁾ 이해하고 있다. 이상을 신석기시대의 편년에 대입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앞에서 살펴본 신석기문화의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는 내륙으로 유적이 이동하고,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태선침선문토기문화가 남해안까지 확산되며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잡곡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시대 중기이다.

12) 안승모, 앞의 논문, 2011, 77쪽.

13) 안승모, 위의 논문, 77쪽.

14)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38쪽.

15) 안승모, 위의 논문, 77쪽.

16) 소상영, 위의 논문, 39쪽.

이 시기는 기후 최적기가 끝나고 한랭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유적의 입지 변화 등의 다양한 문화 변동을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에 대한 인간의 적응양식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석기 조성에서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calBC	분기	식생 및 기후	해수면	신석기편년
10,000				
6,000	온난 1기	참나무속 우점 온난 2기에 비해 상대적 한랭 8.2ka 이벤트 영향 높음	빠른 상승	초창기
5,000				조기
4,000	온난 2기	참나무속 우점(서해안) 소나무속 우점(동해안) 기후 최적기 5.9ka 이벤트 영향 낮음	상승 둔화	전기
3,000				중기
2,000	한랭 1기	참나무-소나무속 우점 전반적인 기후 한랭화 4.2ka 이벤트 영향? 기후 불안정?	상승 정체	후 말기
1,000				
0	한랭 2기	소나무속 우점 초본류 증가 한랭건조	상승 정체	청동기~현재

<그림 1> 홀로세 분기 설정과 신석기시대 편년(소상영 2019, 표 2 전재)

Ⅲ.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생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로서의 석기 조성 변화를 생업 변화와 연결시키는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¹⁷⁾ 이렇듯 석기 조성의 검토가 늦게 시작된 것은 석기의 시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출토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취락 유적이 발견된 이후부터야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의 연구는 중서부지역의 석기 조성을 정리하고 시기별 차이를 검토한 연구나¹⁸⁾, 내륙 지방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석기 조성과 생업 경제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¹⁹⁾ 등 지역별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취락 유적이 중심인 중서부지역과 패총 유적이 중심인 남해안 지역의

-
- 17) 이영덕, 「V-1. 생업유형」, 『한국신석기문화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1; 이영덕, 「6. 생업과 도구의 연구사」,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7.
- 18) 임상택,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I -석기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창간호, 2001; 임상택,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준범, 「신석기시대 서울 경기 지역 출토 간석기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구자진, 『신석기시대 주거와 취락 연구』, 서경문화사, 2011; 윤혜나, 「한국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석기조성과 생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19) 하인수,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하인수, 「신석기시대 석기의 종류와 양상」, 『박물관 연구논집』 15, 부산박물관, 2009; 안성희,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조성과 시기별 양상」,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2011; 윤정국,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2011.

차이 등 연구 대상 유적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또한 중서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편년이 종합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 강원 영동지역²⁰⁾, 제주도 지역에 대한 연구²¹⁾ 등도 시도되었는데, 이처럼 각 지역별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는 초기 농경의 수용과 확산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 중기에 들어와 초기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인식에 대해 각 지역별로 생업 경제에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²²⁾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중, 특징적인 것은 개별 석기 분류에 관한 연구가 석기 조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청동기시대 석기 조성 연구에 있어서도 석기 기종 분류에 대한 검토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²³⁾, 신석기시대의 경우 정형화된 석기의 기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타제석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능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운 다기능성 석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그림 2).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석기 조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석기를 유사한 용도의 범주로 묶어 상대적 비율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범주로 묶기 이전의 단계가 석기의 기종 분류와 용도

-
- 20) 이정재,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검토를 통한 생업의 변화」,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2011; 조은하,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농경 수용과 생계 양상의 변화」, 『호서고고학』 31, 2014.
- 21) 박근태,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2011.
- 22) 최종혁, 「한반도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석기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12, 2005; 최종혁, 「남부지방 중기 생업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2; 최종혁, 「신석기시대의 석기 조성과 생업」, 『신석기시대 석기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6.
- 23) 손준호,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 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2008; 이기성, 「일본 죠평-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59, 2008.

추정인 것이다. 연구자에 따른 석기 기종 분류와 용도 추정이 차이를 보인다면, 결국 그것은 석기 조성 변화 검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에서는 지역별 석기 조성 변화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신석기시대 석기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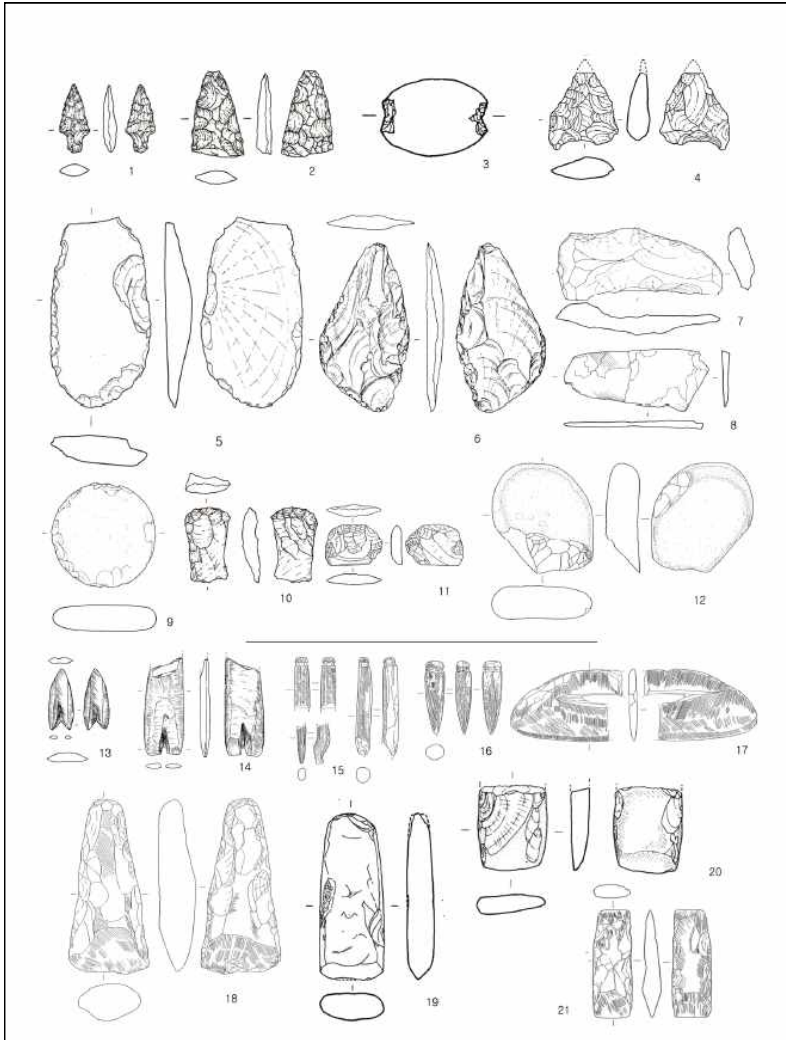
1. 석기의 분류와 용도 추정

석기 기종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단계는 석기를 분류하고, 각 석기의 기능과 용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석기시대는 정형화된 형태를 갖지 못한 석기가 많으며 또한 마제석기와 더불어 타제석기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기에 개별 기종 석기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하게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상택의 경우²⁴⁾, 형태적인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석기를 석부류, 석촉, 석창, 찢개살, 어망추, 낫모양석기, 석도형석기, 갈돌·갈판, 고석, 숫돌, 망치돌, 원반형석기, 기타(돌칼류, 박편석기 및 용도미상석기)로 구분하였다. 석부류를 하나의 기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윤혜나²⁵⁾는 타제석기를 보다 세분하여 고석, 박편석기, 반월형석도, 석검, 석구, 석도, 타제석부, 마제석부, 석착, 석창, 석촉, 석추, 어망추, 연석, 원판형석기, 작살, 정, 지석, 찢개, 찢개살, 찰질석기, 톱니날석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24)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58~59쪽.

25) 윤혜나, 앞의 논문, 2011.



<그림 2> 신석기시대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각종

- (1. 타제석촉, 2. 첨두기, 3.어망추, 4. 작살, 5.굴지구, 6.석도형석기, 7-8, 석검, 9.원반형석기, 10-11. 굽개, 12. 찌개, 13. 석촉, 14. 석창, 15. 결합식조침촉부, 16. 석촉, 17. 석도, 18-21. 석부류(윤정국 2015, 78쪽, <그림3-4> 필자 편집)

이러한 석기의 기종 분류에 더해 구체적으로 개별 석기 기종의 기능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준정²⁶⁾은 패총 출토 석기를 석촉, 어망추, 조합식어구, 갈돌·갈판, 공이돌, 석부, 팽이, 굽개, 대패날, 숫돌, 석재, 기타로 구분하고, 개개의 기능에 대해 석촉은 사냥·어로·수렵자원 가공, 어망추와 조합식어구는 어로, 갈판·갈돌은 식물 가공(갈기), 공이돌은 식물 가공(뿜기), 석부·팽이는 굴토·목재가공 등의 다기능, 굽개·대패날은 목재가공·식료가공 등의 다기능, 숫돌은 마제석기 제작, 석재는 석기제작 등으로 추정하였다. 기타는 패총에서 소량만 출토되는 송곳, 찌개, 주먹돌, 장신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석촉은 침투기(projectile points)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석촉을 수렵구로만 파악했던 것에 비해 식료의 가공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지인²⁷⁾ 역시 개별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였는데,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취락에서 출토된 석기를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찢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구, 어망추, 기타(석재, 미완성석기, 박편석기, 원반형석기, 용도미상석기) 등으로 구분하고, 고석과 대석은 식료자원 가공(찢기), 갈돌과 갈판은 식료자원 가공(갈기), 석창·석촉·찢개살은 식료자원의 획득(수렵 및 어로), 굴지구는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굴토), 합인석부와 마제석부는 벌채·목재 가공 및 처리, 끌은 목재 가공 및 처리(각기), 지석은 석기 제작과 마연, 석도는 자르기, 장신구는 장식, 어망추는 식료자원 획득(어로)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였다. 석부류를 보다 세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개별 기종의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는 연구는 점차 기종을 세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소상영²⁸⁾은 석기를 projectile point(회살촉, 찢개살, 자들구 등), 낚시도구, 어망추, 굴지구(타제석부), 낫, 칼, 갈돌, 갈판, 고석,

26) 이준정, 「패총 유적의 機能에 대한 고찰-생계 주거 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고고학보』, 2002, 61쪽.

27)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17~23쪽.

28)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94~99쪽.

대석, 마제석부(목재가공구), 타제석부(목재가공구), 지석, 방추차, 장신구, 박편석기, 정면구, 시문구, 골침, 기타 등의 20종으로 구분하고, projectile point는 식량자원 포획, 낚시도구는 어류포획, 어망추는 식량자원포획(주로 어류포획), 굴지구(타제석부)의 경우 식량자원 획득(농경, 채집)과 건설(수혈 주거지 축조), 낮은 식량자원 채집(자르기), 칼은 식량자원 처리 및 채집(자르기), 갈돌과 갈판은 식량자원 가공(갈기), 고석과 대석은 식량자원 가공(짚기, 뺨기), 마제석부(목재가공구)와 타제석부(목재가공구)는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지석은 마제석기 제작, 방추차는 직물제작, 장신구는 꾸미기(의례?), 박편석기는 식량자원 가공(자르기), 정면구는 토기 정면, 시문구는 토기 시문 등으로 그 기능을 추정하였다. 보다 기종 분류가 세분화되고 석부를 마제와 타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석기의 기종 분류와 기능 추정은 석기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석기시대 석기의 다기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석기의 다기능성은 다음에서 살펴 볼 석기의 용도별 분류에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

일반적으로 수렵·어로구, 농경관련구, 식료처리구, 목재가공구, 석재가공구, 비실용기 등 석기를 용도별로 범주화하는데, 이 역시 연구자에 따라 용어, 분류 방식 등에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종혁²⁹⁾의 경우, 수렵구와 어로구는 구분하기 어렵기에 수렵·어로구[석촉, 석창, 작살, 찌르개석추, 결합식조침촉부 등], 농경구, 제작구[숫돌]로 구분하였으며, 농경구는 그 쓰임에 따라 경기구[가래, 곰배쟁이, 보습], 수확구[석검, 타제석인, 원반형석기], 조리구[갈판, 갈돌]로 세분하였다.

임상택³⁰⁾의 분류 역시 이와 유사하여, 수렵채집구[석촉, 석창, 어망추,

29) 최종혁, 앞의 논문, 2005, 69~86쪽.

절개살], 굴지·채집·목공구[석부, 자귀, 따비, 팽이, 대팻날, 끌 등], 공구류[숫돌, 망치], 식료제작구[갈돌, 갈판 등], 수확구[낫, 석도], 기태[박편석기, 용도 미상석기 등]로 분류하였다.

하인수³¹⁾의 경우, 석기를 생산용구, 가공구, 비실용구로 대분류한 후, 다시 생산용구를 수렵구[석촉(마제, 타제), 석창(마제, 타제), 침두기], 어로구[어망추, 석추, 결합식조침(촉부), 결합식작살, 작살(마제, 타제석섬), 채집농경구[타제석부(따비, 팽이, 곱배팽이 등 굴지구), 석검, 유견석기, 유선형석기, 원반형석기]로, 가공구는 식료가공[갈돌, 마석, 갈판, 고석, 요석(흙돌), 대석, 석기, 석도, 석인, 석거(돌툽), 역기, 박편석기(굽개, 밀개, 짜르개 등)], 목재가공[마제석부(소형, 대형), 인부마연석부(소형, 대형), 석착, 편평편인석부 등], 석재가공[지석(소형, 대형), 찰절석기, 고석, 석추(송곳)]로 구분하였다. 기타는 발화석 등이 포함되며, 비실용구는 장신구[이식, 수식, 석천], 의례구[봉상석기(석봉)]을 나누었다.

박준범³²⁾은 중부 지역의 석기를 대상으로 생산용구, 가공구, 꾸밈과 의식구의 3 종류로 크게 나누고, 그 중 생산용구는 수렵어로용[타제의 돌살촉, 돌창, 찌르개, 그물추, 작살(결합식)과 마제의 돌화살촉, 돌창, 작살, 낚시바늘(결합식), 돌추 등], 채집농경용 도구[타제의 따비, 팽이 곱배팽이와 마제의 돌낫]으로 구분하였다. 생업경제 방식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를 구분하였다는 점이 세부적이다. 가공구는 식료가공용[타제의 갈돌, 갈판, 흙돌, 대석, 돌칼(조합식), 굽개, 밀개와 마제의 돌칼], 목재가공용[타제의 돌툽, 돌칼, 돌도끼 등], 석기제작용[타제의 돌감, 숫돌, 돌망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꾸밈과 의식구는 치례걸이[마제의 귀걸이, 팔찌, 옥장식]와 의례용구[타제의 공이]로 나누었다.

30) 임상택, 앞의 논문, 2006, 74쪽.

31) 하인수, 앞의 논문, 2006, 141~142쪽.

32) 박준범, 앞의 논문, 2008, 47쪽.

박근태³³⁾의 분류 역시 유사하다. 석기를 수렵구, 어로구, 농경구, 목공구, 조리구, 기타, 장신구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은 그 사용방식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즉 수렵구는 자돌구[석촉과 타제, 마제석창, 유경침두기 등]와 때려잡기 도구[사냥돌, 찌개(양면찌개, 외날찌개), 주먹도끼, 석봉의 일부]로, 어로구는 자돌구[작살, 고정식작살, 결합식작살]와 낚시구[석추, 결합식조침, 부석], 어망구[어망추]로 분류하였다. 농경구는 굴지구[돌보습, 돌괭이, 곱배괭이 등의 타제석부]와 수확구[타제석부, 석검, 석도형석기, 석인]로, 목공구는 석기제작구[숫돌(지석), 대석, 고석(돌망치), 찰절석기, 석추(뚜루개) 등]와 목기제작구[마제석부(전면마연석부, 인부마연석부, 단인석부, 석착), 돌툽, 밀개, 새기개 등]로 나누었으며, 조리구는 제분구[갈돌, 갈판, 홈돌, 고석(공이)]와 식재료 정리용[석시, 석도, 석도형석기, 돌툽, 박편석기(굽개, 밀개, 자르개)]으로 세분하였다. 기타에는 부석·발화구·몸돌·격지 등이 포함되며, 장신구는 의례[석봉의 일부]와 장신구[수식, 귀고리, 관옥, 결상이석 등]으로 나누었다.

33) 박근태, 앞의 논문, 2011, 151~152쪽.

<표 1> 주요 연구자별 석기 분류의 상이
(음영부분은 농경구로 구분된 석기 기종의 차이)

임상택(2006)		최종혁(2005)		하인수(2006)		
수렵 채집 구	석촉, 석창, 어망추, 찔개살	수렵·어로 구	석촉, 석창, 작살, 찌르개 석추, 결합식 조침촉 부 등	수렵 구	석촉(마제, 타제), 석창(마제, 타제), 침두기	
				어로 구	어망추, 석추, 결합식조침(촉부), 결합식작살, 작살(마제, 타제)석선	
				채집 농경 구	타제석부(따비, 팽이, 곰배팽이 등 끝지구), 석검, 유선석기, 유선형석기, 원반형석기	
굴지 · 채집 · 목공 구	석부, 자귀, 따비, 팽이, 대팻날, 끝 등	농경 구	경기 구	가래, 곰배팽 이, 보습	식료 가공	갈돌, 마석, 갈판, 고석, 요석(흙돌), 대석, 석기, 석도, 석인, 석거(돌툽), 역기, 박편석기(긁개, 밀개, 짜르개 등)
			수확 구	석검, 타제석 인, 원반형 석기		
공구 류	숫돌, 망치	농경 구	조리 구	갈판, 갈돌	목재 가공	마제석부(소형, 대형), 인부마연석부(소형, 대형), 석창, 편평편인석부 등
식료 제작 구	갈돌, 갈판 등				석재 가공	지석(소형, 대형), 찰절석기, 고석, 석추(송곳)
수확 구	낫, 석도				기타	발화석
기타	박편석 기, 용도미 상석기 등	제작 구	숫돌	비 실 용 구	장신 구	이식, 수식, 석천
					의례 구	봉상석기(석봉)

즉 석기의 다기능적인 측면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수렵구와 어로구를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든가, 또는 채집과 목공구를 하나의 용도로 파악하는가 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타제석부는 연구자에 따라 농경과 관련된 기경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수혈주거지 조성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칼의 경우 수확구로 분류하면 농경관련 도구가 될 것이나 식량처리구로 분류한다면 수렵채집구로 구분될 수도 있는 것이다(표 1). 연구자에 따라 이러한 분류 기준의 상이는 실제 분석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능에 따른 분류 외에 본고에서 다루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 기술에 따라 석기를 분류한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윤정국³⁴⁾은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를, 석기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석기(제작석기), 도구로 만들어진 석기(도구석기), 그리고 유적 내로 운반된 석재(모암)으로 대별하고, 그 중 도구석기를 가공유무에 따라 가공석기와 무가공석기로 구분한 후, 결면에 남아있는 최종 제작기술에 따라 타제, 마제, 고타석기로 나누어 기종을 구분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 타제석기는 타제석촉·침도기·어망추·작살·석시·굴지구류·인기·석도형석기·타제석검·원반형석기·굽개·밀개·성형석기·찍개 등의 기종이 있으며, 마제석기에는 마제석촉·마제석창·결합식조침촉부·석추·석도·석검·석부·석창 등의 기종이, 고타석기에는 갈돌·갈판·흠돌·고석 등의 기종이, 무가공석기에는 대석, 발화석, 고석과 흠돌 등이 포함된다. 이 분류 방식은 각 기종의 석기가 어떠한 흐름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마제와 타제 양 기법으로 제작되는 석촉이나 석창 등을 제작 기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34)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0~71 쪽.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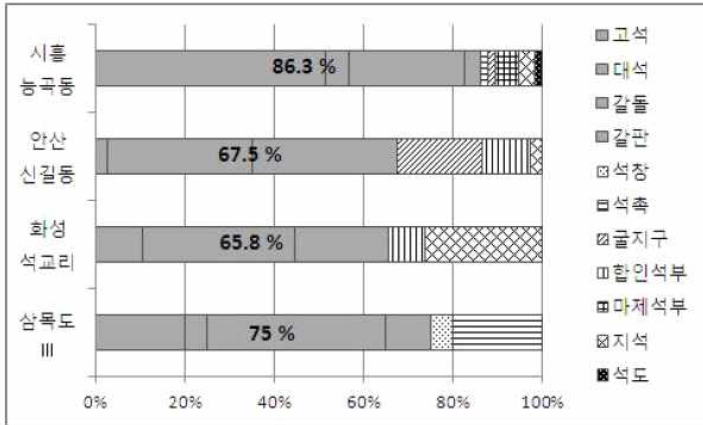
2. 석기 조성의 변화

다음에서는 중서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석기 조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중서부지역의 경우, 전기부터 다양한 석기가 출토되는 양상, 특히 석부류의 풍부함이 지적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초기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인식되었다.³⁵⁾ 시흥 능곡동유적, 안산 신길동유적, 화성 석교리유적, 삼목도 III유적 등의 중기 취락유적에서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축,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지석, 석도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출토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고석, 대석, 갈돌, 갈판 등의 식료가공구가 평균 71%의 높은 비중으로 출토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석기는 유적별로 서로 상이한 출토 양상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삼목도 III유적에서는 석축과 석창이 25%의 비율로 출토되어, 수렵 및 어로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농경관련구가 하나도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 안산 신길동유적의 경우 다른 유적과 달리 굴지구가 19%, 합인석부가 11%의 비율로 출토되는 등 유적별 상이한 출토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3).³⁶⁾

35)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72쪽.

36)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68쪽.



<그림 3> 중서부지역 중기 석기 출토 현황(유지인 2012, 그림 12 전제)

영종도 중산동유적, 운북동유적 등 후기의 유적에서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찢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구, 어망추 등이 출토되는데, 중기에 비해 장신구 등이 추가되어 석기 기종의 수는 증가한다. 식료가공구가 평균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기와 동일하지만, 그 외 석기 조성은 석촉과 석창 등의 첨두기류가 다수 증가하고, 굴지구와 마제석부류가 기종도 다양해지며 출토 수량 역시 증가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4).

한다.³⁹⁾

남해안 지역의 석기 조성 변화 역시 큰 흐름에서는 중서부지역과 유사하다. 조기의 경우 타제석촉과 결합식조침 등이 다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갈돌, 갈판, 고석, 따비형·괘이형 타제석부 역시 안정적으로 출토된다. 전기는 조기에 비해 수렵·어로구의 출토량과 비중이 다소 줄어들지만 타제석부와 인부마연석부의 출토량이 급증하고, 중기의 경우 석촉과, 작살, 결합식조침의 출토는 이어지며 마제석부가 급증한다. 후기의 경우 석촉과 작살, 결합식조침 등은 감소하며, 마제석부와 갈판, 갈돌, 고석의 출토 양상은 중기와 유사하다. 만기가 되면 석촉, 작살, 결합식조침은 한 점도 출토례가 없으며, 타제석부와 마제석부의 출토 비중은 높아진다.⁴⁰⁾

이를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와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기의 경우 수렵과 어로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채집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전기와 중기의 타제석부와 마제석부의 출토량의 증가는 생업 경제 활동의 변화, 즉 잡곡 농경의 시작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점차 후기와 만기에 수렵 및 어로구의 출토 비율이 감소하고 타제석부 및 마제석부가 증가하는 양상은 결국 생업경제에서 수렵, 어로의 비중이 점차 축소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서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 공통되는 것은 이른 시기부터 타제석부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석부류가 등장하고, 중기에 들어서서 굴지구와 목재가공구가 증가하고 후·만기까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석기 조성은 유적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이것은 결국 유적의 입지에 따른 생활양식의 다양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9)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21~123쪽.

40) 안성희, 앞의 논문, 2011, 137~138쪽.

이상의 지역별 연구 외에 유적 출토 도구 조성을 바탕으로, 생업 경제 방식을 수렵활동, 어로활동, 농경활동으로 구분하고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그 변화상을 살펴보기도 한다.⁴¹⁾

- A유형 : 수렵과 어로 활동이 중심인 유적으로 어로 활동에 의해 세분.
 - Aa : 수렵활동과 외양성 어업이 행해진 유적
 - Ab : 수렵활동과 내만성 어업이 행해진 유적
 - Ac : Aa와 Ab 중 농경활동이 행해진 유적
 - Ad : 수렵 어로구로 석촉·석창·어망추 등이 출토되며, 농경구가 세트
로 출토되지 않아 농경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유적
- B유형 : 수렵과 농경활동이 중심인 유적으로 농경활동에 의해 세분.
 - B① : 농경구 중 경기구가 보습이 중심인 유적, 여기서는 팽이가 출토된다.
 - B② : 농경구 중 경기구가 곰배팽이, 팽이가 중심인 유적
- C 유형 : 패류 채집 또 특수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유적으로 패총.

아래의 <표 2>는 지역별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41) 최종혁, 앞의 논문, 2016.

<표 2> 지역별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최종혁 2016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조기	전기	중기	후기~말기
남부	Aa	도서 : Aa	도서·해안 : Aa+b	도서·해안 : Ac
		해안·내만 : Aa+b	내만 : Aa+b 내륙 : B①	내만 : Ab 내륙 : B①
동해안	Aa	Aa+b	Ad	Ac 또는 B
동북	Aa	Aa	내륙 : B②	내륙 : B②
			해안 : Ac	해안 : Ac
서북		B②	내륙 : B②	B
			해안 : Ad	
서부		Ad	내륙 : B①	B
			해안 : Ac	
중부		내륙 : Ad	내륙 : B②	내륙 : B
		도서·해안 : C	도서·해안 : C	도서·해안 : C
		취락 : Ad	취락 : Ad	취락 : Ad 금강 : B

<표 2>를 본다면 결국 농경은 중기에 들어와서도 내륙 지역만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안과 도서 지역은 늦은 시기까지 전기부터 이어져 온 어로와 수렵이 중심이 되는 생업 경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생업 경제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석기 조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석기 조성 변화 양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제석부류의 증가를 채집 경제의 증가⁴²⁾로 보거나 또는 농경의 증가 또는 대규모 취락의 조성⁴³⁾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42) 안성희, 앞의 논문, 2011, 137~141쪽.

43)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석기 조성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생업 경제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하기에는 그 변화 폭이 그리 크지 않기에, 오히려 석기 조성의 변화를 생업 경제의 변화가 아닌 유적별 입지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⁴⁾

그렇다면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로 생업 경제 변화, 더 나아가 기후 변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Ⅳ.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연구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석기시대의 문화적 변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후 변동을 들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획기는 기후 최적기에서 한랭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식료 자원을 찾아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고 수렵채집 자원의 감소에 따라 조, 기장 등의 잡곡 농경을 수용한 신석기시대 중기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석기 조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중기의 석기 조성 변화로 지목되는 양상은 석부류의 풍부함, 다양한 종류의 석기 조합상과 식량 가공구의 압도적인 비중, 석기 유형의 세분화, 마제석부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검토에서는 농경의 적극적인 증거로 석기 조성의 변화를 들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잡곡 농경을 수용한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탄화 곡물 자료의 출토이다. 남부해안 지역에서 조, 기장 등이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중기에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보고⁴⁵⁾, 유사한 시점에 확인되는 석기 조성의 변화를 농경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석기 조성 변화로 농경의 도입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농경의 시작

44)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21~123쪽.

45) 최중혁, 앞의 논문, 2005, 77쪽.

시점을 추정하고 그 시점의 석기 조성 변화가 농경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사한 석기 조성의 변화라도 시기별로 상이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다음의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1. 석기 용도 추정의 문제

농경의 등장 또는 확산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이야기되는 석기는 굴지구로 추정되는 팽이, 곰배팽이, 따비 등의 타제석부류와 석도 등의 수확구이다. 타제석부류의 용도 추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굴토 기능은 농경 이외에도 채집, 수혈주거지의 축조 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연구자에 따라 타제석부류를 굴지·채집으로 분류하거나⁴⁶⁾, 농경구로 판단하거나⁴⁷⁾ 또는 채집농경구⁴⁸⁾로 구분하기도 한다. 농경에 보다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농경과 채집 등 생업 경제 방식을 고려한 입장이거나 혹은 굴토라는 기능 자체를 고려하는 등 타제석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분류 방식도 달라지며,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한 석기 조성 검토 결과 역시 달라진다. 즉 중기에 확인되는 타제석부류의 증가를 대규모 취락 조성의 증거로 볼 것인지 또는 잠곡 농경의 확산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선택이 된다. 마찬가지로 조, 전기에 보이는 다양한 타제석부류를 초기 농경의 흔적으로 볼지⁴⁹⁾, 활발한 채집 경제의 흔적⁵⁰⁾으로 볼 것인지 역시 연구자의 석기 분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46) 임상택, 앞의 논문, 2006, 74쪽.

47) 최중혁, 앞의 논문, 2005, 70쪽.

48) 하인수, 앞의 논문, 2006, 142쪽.

49)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72쪽.

50) 안성희, 앞의 논문, 2011, 137~141쪽.

마찬가지로 수확구로 분류되는 석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타제 석기로도 자주 확인되는 돌칼(석도)은 수확구로 분류되거나⁵¹⁾, 식료가 공구⁵²⁾로 분류되기도 한다. 무언가를 자른다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식료 채집, 농경물 수확, 수렵물의 처리 등 다양한 생업 방식에 모두 사용되었을 것이지만, 한 범주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방법상의 문제로 결국은 하나의 용도로만 지정되고, 이것은 생업 경제 방식 분석의 오류의 원인이 된다.

즉 여러 기능이 상정되는 신석기시대 석기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석기 조성의 변화를 농경의 증가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나, 석기의 기능 추정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검토가 필요하다.

2. 기후 변동 시점의 문제

기후 변동과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연구자에 따라 기후 변동의 연대관이 공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림 5). 고기후 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연구자들은 고기후 복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영⁵³⁾의 기후 변동 인식에 대해 바탕이 되는 원천 연구들이 ‘순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자료의 분석에 의존한 것이어서 실제 기후라기보다는 (인간의 영향이 미쳤을) 식생 양상을 복원한 경우도 적지 않고 해상도 역시 높지 않다⁵⁴⁾’고 지적되기도 하며, 또한 4000BP~2000BP까지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것을 신석기시대 문화

51) 임상택, 앞의 논문, 2006, 74쪽; 최종혁, 앞의 논문, 2005, 70쪽.

52) 하인수, 앞의 논문, 2006, 142쪽.

53)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54) 김범철, 『한국 선사시대 세계(경제) 전략의 시·공간적 변이와 기후』, 『호서고고학』 44, 2019, 36쪽.

해체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⁵⁵⁾, 이 연대폭은 청동기시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건조한 기후의 지속에도 청동기시대 생업 경제의 다양성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고고학자가 원천 연구의 목적, 해상도, 분석시료와 방법의 적절성 등을 판정하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⁵⁶⁾



<그림 5> 연구자에 따른 기후 복원의 차이(김범철 2019, 도면 3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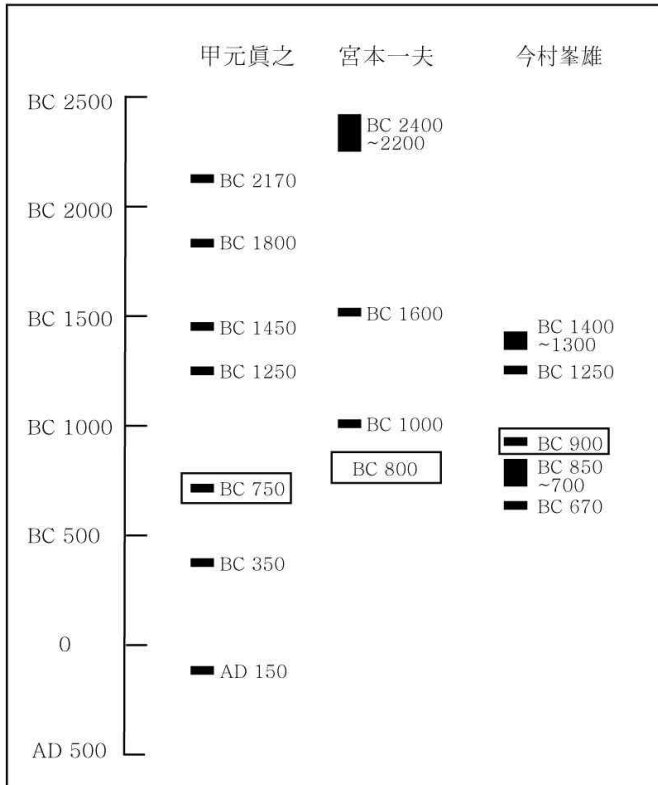
55)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39쪽.

56)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39쪽.

물론 이러한 차이는 한국고고학에서만의 사례는 아니며, 일찍부터 고기후 연구 성과를 고고학에 반영해 온 일본 역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일본 선사시대에 가장 문화적 변동이 컸던 죠평시대에서 야요이시대의 전환기를 해석하는데 있어 동일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통해 고기후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한랭기 횡수와 그 절대연대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며, 결국 그에 대한 비판 능력이 약하거나 혹은 결여되어 있는 고고학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년관에 비추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대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자의적인 고고학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그림 6).⁵⁷⁾ 이에 대해 고고학 연구자의 고기후 변동에 대한 천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⁸⁾

57) 이기성, 「기후 변동의 고고학 - 일본고고학 연구사례의 비판적 검토」, 『선사와 고대』 56, 2018, 121~123쪽.

58) 김범철, 「온난습윤 혹은 한랭건조?」, 『호서고고학』 39, 2018;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그림 6> 죠몽-야요이시대 한랭기에 대한 연구자별 차이
(이기성 2018, 123쪽, 그림 5 전제)

3.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변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가이다.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기후 변동과 연관 시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기후 변동과 해수면 변동에 의한 유적 입지의 변화 → 그에 따른 식료 자원의 변화 →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에 따른

도구의 변화라는 연결 고리에서, 결국 기후 변동이 석기 조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반대로 석기 조성 변화를 통해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신석기시대 잡곡 농경의 시작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중기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탄화 곡물 등으로, 그 시점에 농경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제석부류의 증가라는 석기 조성의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제석부류의 증가와 잡곡 농경의 시작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제석부의 증가를 대형 취락의 조성과 연결시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중기 이후 유적별 다양한 석기 조성의 차이는 유적별로 상이한 행위가 중심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⁵⁹⁾, 이것은 환경변화보다는 집단에 따른 다양한 적응전략의 선택⁶⁰⁾이 문화변동의 요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석기 기능 추정의 문제로 농경의 수용을 석기 조성 변화만으로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환경 변화에 따른 농경의 수용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강조하기에는 아직 방법론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동이 선사시대 사회문화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작게 보기는 어렵다는⁶¹⁾ 점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그 영향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후 변동 시점의 문제, 석기 기능 추정의 문제 등 여러 장애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59)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21~123쪽.

60)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36쪽.

61)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33쪽.

V. 맺음말

구석기시대의 종말과 신석기시대 시작까지의 공백기, 동남해안과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 등장의 시간적 차이, 신석기시대 중기에 확인되는 유적 입지의 변화와 농경의 확산,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유적의 해체 등, 신석기시대 문화의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 중요한 획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문화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내륙 지역으로의 유적 입지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이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를 석기의 조성 변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검토에서는 기후 변동과 농경의 수용 그리고 석기 조성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농경의 수용 등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 다양한 적응 전략의 산물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석기시대 석기의 성격상, 농경 수용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야기되는 타제석부의 등장을 반드시 농경의 증거만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물론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이 당시의 사회, 생업경제 등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진, 『신석기시대 주거와 취락 연구』, 서경문화사, 2011.
- 김범철, 「온난습윤 혹은 한랭건조?」, 『호서고고학』 39, 2018, 4~31쪽.
- 김범철, 「한국 선사시대 생계(경제) 전략의 시·공간적 변이와 기후」, 『호서고고학』 44, 2019.
- 박근태,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2011, 43~83쪽.
- 박준범, 「신석기시대 서울 경기지역 출토 간석기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39~65쪽.
- 박지훈·이상헌, 「화분분석으로 본 충남지역의 후빙기 환경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4-1, 2008, 55~75쪽.
- 성춘택, 「수렵채집민의 이동성과 한반도 남부의 플라이스토세 말~홀로세 초 문화변동의 이해」, 『한국고고학보』 72, 2009, 4~35쪽.
-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문화 변동』, 서경문화사, 2016.
- 소상영, 「한국 신석기시대 기후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 『기후의 고고학』 제3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9~28쪽.
- 손준호,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 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2008, 36~61쪽.
- 안성희,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조성과 시기별 양상」,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2011, 135~149쪽.
- 안승모, 「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1, 63~97쪽.
-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정국,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2011, 57~92쪽.
-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윤혜나, 「한국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석기조성과 생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기성, 「일본 죠훑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59, 2008, 21~49쪽.
- 이기성, 「기후 변동의 고고학 - 일본고고학 연구사례의 비판적 검토-」, 『선사와 고대』 56, 2018, 107~129쪽.
- 이영덕, 「V-1. 생업유형」, 『한국신석기문화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1, 335~367쪽.
- 이영덕, 「6. 생업과 도구의 연구사」,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7.
- 이정재,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검토를 통한 생업의 변화」,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2011, 94~117쪽.
- 이준정, 「패총 유적의 機能에 대한 고찰-생계 주거 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고고학보』, 2002, 53~80쪽.
- 임상택,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I -석기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창간호, 2001, 57~81쪽.
- 임상택,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조은하,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농경 수용과 생계 양상의 변화」, 『호서고고학』 31, 2014, 4~35쪽.
- 최중혁, 「한반도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 - 석기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12, 2005, 69~86쪽.
- 최중혁, 「남부지방 중기 생업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2012,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최중혁, 「신석기시대의 석기 조성 and 생업」, 『신석기시대 석기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6.
- 하인수,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하인수, 「신석기시대 석기의 종류와 양상」, 『박물관 연구논집』 15, 부산박물관, 2009.

Abstract

THE CHANGE OF CLIMATE AND STONE-TOOL ASSEMBLAGES
IN THE NEOLITHIC AGE

YI KISUNG (YI, KI SUNG)

Climate change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mechanism in explaining cultural transform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Neolithic Age. The broad understanding is that epoch-making events in the chronological flow of Neolithic culture—e.g. the period of inactivity between the end of the Paleolithic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Neolithic Ag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eastern coast and the midwest region regarding emergence of Neolithic culture, changes in the location of relics since the mid-Neolithic Age and the spread of agriculture, and disintegration of relics from the late Neolithic Age were related to climate chang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mong these cultural changes, the most ground-breaking events were changes in the location of relics toward the inland during the mid Neolithic Age, and acceptance and expansion of agriculture. And the evidence of acceptance and expansion of agriculture may be found in changes made in stoneware.

However, it is hard to find a direct relationship among climate change, acceptance of agriculture, and stone tool assemblages. The acceptance of agriculture may be an outcome of various strategies for adaptation since the mid Neolithic Age; considering versatile nature of Neolithic Age stone

tools, the emergence of chipped stone axe—seen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evidence of agriculture—may not be seen as an absolute proof of agriculture.

Although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during the Neolithic Age on the society and people's economic livelihood cannot be overlook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eeds to be interpreted cautiously.

Key Words : Neolithic Age, climate change, stone tool assemblages, strategies for adaptation, agriculture